

# <주일+복의 개념>



Ebenezer Theological Seminary

# <주일 : Lord's Day>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창조의 질서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여 인간에게도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

이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식일 준수는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 한 주의 일곱째 날인 토요일, 곧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졌다.

히브리어 "샤마트"는 '쉬다', '멈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거룩한 쉼, 즉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었다.

이날은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것으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는 물론, 육체적인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날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참된 안식의 의미는 상실되었다. 단순히 육체적인 쉼으로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육체적으로 쉬다고 안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간의 첫째 날을 '주일'(예수님의 날)이라 부르며 거룩한 날로 지켰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첫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악된 세상을 비추는 참 구원의 빛, 참 생명의 빛이 되셨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새날, 즉 주일을 만드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주일은 새 창조의 날이 되었으며,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일인 주일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인생들에 진정한 안식이 되셨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죄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이 있으며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이 '구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회복하신 '새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에서 구 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5장에서는 어린양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새 창조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새 노래라고 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누릴 참 안식의 예표요 그림자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주일로 그 의미가 바뀐 것이다.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 아래서 지키도록 했다면 주일은 성령의 인도로 기쁘게 지켜야 한다.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반면, 신약의 주일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지키는 날이다.

참된 안식은 단순히 날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구약의 안식일이 육체적 노동 후의 쉼이라면, 주일은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영적 안식의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매 주일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며, 연보와 봉사를 실천했다(고전 16:2).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은혜의 날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과 예배로 거룩히 구별되길 원하셨다.

십계명에서는 안식일 준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그의 백성들이 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안식일은 이레 중 첫째 날, 곧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Lord's Day)이다.

우리는 이 주일에 안식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 등,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로서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주일로 이어졌고,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룩한 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안식일과 주의 날>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제도로, 모세오경 율법 체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과 연관해 본질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안식’(שַׁבָּת 샤바트 : 휴식, rest)이란 단어는 창2:2 처음으로 등장한다.

(창 2: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출16:23 ‘안식일’이란 단어가 나온다.

(출 16:23 내일은 휴일이니(a day of rest)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

여기서 안식일이란 정하여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날을 말씀하고 있다.

구약에서 안식일의 핵심은 날(day) 자체가 아니라 쉼(rest)에 있다. 하나님께서도 이 날 쉬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 명령의 의미는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노동에서 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 20:11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리고 출31:13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온다.

(출 31:13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안식일의 의미는 신5:1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 5: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의 힘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므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준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출애굽 시켜 쉼이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의 날>(κυριακή ἡμέρα 쿨리아케 헤메라 Lord's Day)을 정의하자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나라로 우리들 구원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인 <주님의 날>, 곧 “주일”이라 할 수 있다.

## <주일 예배의 성경적 근거>

요 20:19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후 첫 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다.

이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 오셨다.

같은 장면이 눅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 하셨고 (36-43), 말씀을 선포하시고(44-49), 성도들을 축복해 주셨다.(50-51)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52)

이처럼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을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정한 전통이나 관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부터 직접 세워 주신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계 1:10절에 사도요한이 밧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을 뵈는 장면과,

행 20:7절에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서로 떡을 먹으며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주의 날”, 즉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성도들이 모이는 날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특별한 만남의 날인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 근거로 진정한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메시아닉 유대교(Messianic Judaism)

-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 유대인의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안식일), 신약과 예수 중심의 복음을 따름.

동방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

- 로마 Catholic과 분리되어 교황을 부정하며 독자적인 신앙관을 가진 교회.
- 일요일(부활의 날) 성찬 중심의 예배 + 토요일을 중요한 안식 날로 여김.

# <복의 개념>

복이란 내가 만들거나 찾거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매개체로부터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는, 준다는 매개체의 실체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창1:28)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만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 <복의 사전적 의미>

### I. 복(福)

#### <세속적 관점>

- 어떤 대상으로 인하여 만족과 기쁨을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행운이나 혜택.
- 일반적으로 인간이 바라는 좋은 것, 즉 삶에서 누리는 유익함이나 좋은 상태를 의미.
- 건강, 돈, 좋은 인간관계, 성공, 편안한 삶 등

#### <종교적 관점>

-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운 선물
- 재물, 건강, 자녀, 장수 등의 외적인 번영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은혜, 영적 풍성함도 포함됨

### II. 축복(祝福)

#### <세속적 관점>

- "축복"은 글자 그대로는 '복을 빈다', '복을 기원한다'는 뜻.
- 누군가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거나 기원하는 행위. 기원, 기도. 의식에 가까움.
-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며 마음을 담아 전하는 말이나 행동.
- 능동적인 행위로 '복'을 주는 주체가 있음. 보통 종교적이거나 의식적 맥락에서 사용됨.

#### <종교적 관점>

-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축복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

-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군가에게 복을 구하는 행위. (민수기 6:24-26)
-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상대의 삶에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행위.
- 축복은 복을 나누거나 빌어주는 행위이며,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여 복을 선포하는 것.

### III. 행복(幸福)

#### <세속적인 관점>

- 행복은 기쁨, 만족, 평안, 의미 있는 삶을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결합된 상태.
-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 일시적인 기쁨(즐거움)과는 다르며, 지속적 삶의 만족도와 관련있음.
- 내면적인 감정으로, 복과 달리 자기 안에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
- 타인이 줄 수는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 축복을 누리는 상태.

#### <신앙적 관점>

-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요 15:11, 빌 4:4)
-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충족감, 기쁨, 의미이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관계 속에서 결정되며,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것이다>

##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가?>

### 1. 바라크 (ברך Bless)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복.
-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bless) 주어
- 신 23:2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bless) 내리시리라.
- 시 29:11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bless) 주시리로다.
- 학 2:19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bless) 주리라.
- 복을 부여하는 과정과 부여받은 상태
- 바라크는 조건이 따른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 바라크의 복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누릴 수 있다.
- 복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 2. 에세르 (עֲשֵׂר Blessed. Happiness)

-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 복을 누리는 자(행복)
- 하나님이 부여하신 복(바라크)을 누리는 것.
- 지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우리들이 실제적인 복을 누리는 것)
-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하는 것.
- 시 1:1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 시 2:12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 잠 8:32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 잠 14:21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마카리우스 (μακάριος) : 똑바른 길을 가는 자. 올바르게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통해 오는 행복.(산상수훈)

### 3. 베라카 (ברכה Blessing).

<창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바라크)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베라카) 근원이 될찌라>

-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바라크의 복이(Bless), 아슈레(Blessed)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Blessing 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
-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복이다.

※εὐαγγέλιον(유앙겔리온) :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복이 진행됨으로 ‘복음’이 ‘베레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약에서는 ‘바라크’의 복은 없고(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바라크’와 동일한 복을 부여받고) ‘에세르’(마카리오스)와 ‘베라크’(울로게오)의 복은 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라크’의 선포를 통해 그 선포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슈레’이며, 끝까지 순종하므로 복을 누리는 것이 ‘베라카’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이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름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이다.

-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동기부여) - 바라크.
- 그 바라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 - 아슈레.
- 그 받은 복(아슈레)을 계속 이어 가는 것 - 베라카.